

# 잘 나가는 기아 EV3... 테슬라 '바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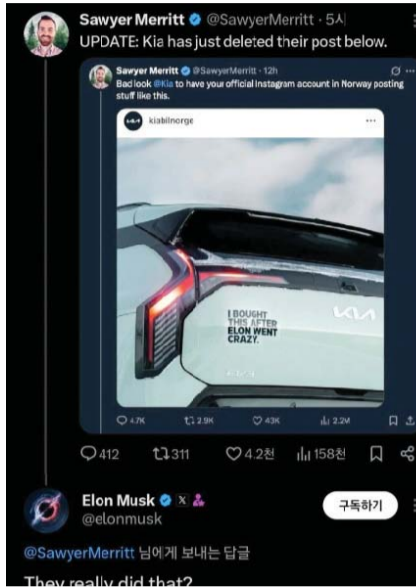
소형 EV 중 최고수준 경쟁력 갖춰 글로벌 대리점, 머스크 도발 마케팅 기아 "본사와는 아무런 연관 없어"

기아 노르웨이 대리점에서 EV3 홍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도발하는 마케팅을 선보였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아 EV3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테슬라 판매량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경전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르웨이 공식 대리점(대리점)은 기아의 소형 전기차 'EV3' 홍보를 목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저격했다. 대리점은 EV3 좌측 후미등쪽에 'I BOUGHT THIS AFTER ELON WENT CRAZY(일론 머스크가 미친 뒤 구매하는 차)'라고 쓰여진 차량 광고를 선보였다. 대리점은 해당 광고를 이달 초부터 노르웨이 주요 신문 및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게재했다.

이를 본 머스크는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They really did that?(그들이 정말 그걸요?)"라고 적으면서 신경전을 펼쳤다.

지난 몇 달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머스크의 발언, 비즈니스 결정, 정치적 견해 등을 본 테슬라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머스크를 비판하는 대리점의 흥



기아 노르웨이 대리점이 일론 머스크를 도발하는 홍보 사진을 게시했다. /일론 머스크 X 캡처

보가 인기를 끌고 있다. 머스크가 발끈한 이유는 최근 부진한 테슬라 판매량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월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차량 등록된 전기차를 분석한 결과, 폭스바겐그룹이 테슬라를 제치고 판매량 1위에 올랐다. 폭스바겐 그룹은 전년 대비 68.5% 증가한 8만2000대 판매량을 기록한 반면 2위를 기록한 테슬라는 전년 동기 대비 14.7% 감소한 5만7000대를 판매했다.

특히 유럽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45.9%, 북미에서는 2.1%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그룹은 3위를 차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4% 성장한 약 3만7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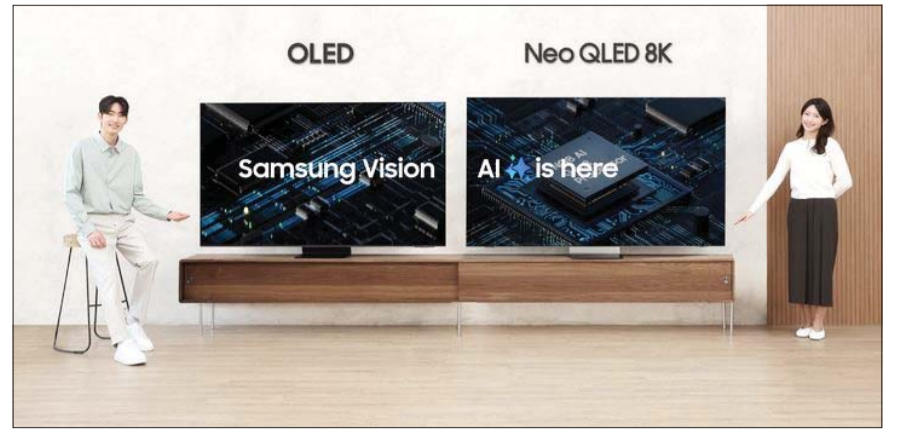
또한 테슬라의 올해 1월 유럽 31개국의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는 9945대로, 전년 동기(1만8161대)와 대비 45.2% 급감했다. 같은 기간 기아는 26.2% 증가한 7944대를 판매했고 그중 EV3는 5005대가 팔리며 월간 기준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기아 EV3는 소형 전기차 라인에서 최고 수준의 가격·상품 경쟁력을 갖췄다. 유럽 인증 기준 1회 충전 시 605km의 주행 가능 거리와 3만 유로(약 4496만 원)대 판매 가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반면 테슬라 모델Y의 경우 가장 저렴한 후륜구동 제품 시작가는 4만4990 유로(약 6525만 원), 1회 충전 시 609km 주행가능하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2025 기아 EV 데이'에서 "전기차 캐즘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지만 전동화를 향한 확고한 신념으로 시장 트렌드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일론 머스크 도발 홍보는 본사 마케팅이 아닌 기아 노르웨이 대리점의 자체 마케팅으로 본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삼성전자 모델이 2025년형 AI TV 신제품 'Neo QLED 8K(85QN990)'와 'OLED(83SF95)'를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 삼성전자, AI TV 신제품 사전판매 돌입

무타공 솔루션 등 할인 혜택 제공

삼성전자가 12일부터 2025년 AI(인공지능) TV 신제품의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전 판매는 Neo QLED?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Neo QLED 제품의 AI TV 모델군을 7개(QNF990?900?95?90?85?80?70)시리즈로 확대했다. 또 올레드 TV도 기존 10개에서 14개 제품으로 선택을 넓혔다.

올해 신제품은 다양한 신규 AI 기능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홈 인사이트'는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기기 사용 이력, 집안 현재 환경을 고려해 ▲부재 중 기기 전원 끄기 ▲오리 중 주방 후드 켜기 등의 기능을 추천한다.

또 '홈 모니터링' 기능은 집안의 이

상 움직임을 감지해 실시간 알람을 제공하며, 'AI 버튼'이 추가돼 유사 프로그램 추천 등 콘텐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클릭 투 서치'를 바로 실행할 수 있다. 시청 중인 콘텐츠에 대한 '실시간 번역(Live Translate)' 기능도 제공한다.

Neo QLED 8K(QNF990)는 '3세대 AI 8K 프로세서'가 탑재돼 콘텐츠에 최적화된 화질과 사운드를 구현한다. 또 여러 TV 주변 기기들을 TV에 연결할 수 있는 '무선 원커넥트 박스' 솔루션을 새롭게 적용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내달 신규 AI 기능이 탑재된 QLED 신모델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사전 구매한 고객에게 '무타공 솔루션'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Neo QLED 8K(QNF990) 98형 기준 최대 450만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SK에너지, 캐세이퍼시픽항공 SAF 공급

(지속가능항공유)

홍콩시장 진출... 아태 공략 속도 "글로벌 SAF 공급망 구축해 갈 것"

SK에너지가 국내 정유사 중 처음으로 홍콩 국적항공사에 지속가능항공유(SAF)를 대량으로 공급한다.

SK에너지는 지난 10일 홍콩 국적항공사인 캐세이퍼시픽항공과 오는 2027년까지 2만톤 이상의 SAF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캐세이퍼시픽항공은 지난해 11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에 SK에너지가 공급하는 SAF를 넣기 시작했다. 양사는 앞으로 SAF 사용 노선을 계속해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SK에너지는 지난 1월 유럽에 SAF를 수출한 지 2개월여만에 홍콩 최대 민항사와 안정적인 SAF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국내 정유사 수출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거점 시장이다.

특히 홍콩 책략국국제공항은 지난해 여행객수에서 전세계 5위를 기록하는 등 아태 지역의 주요 환승 허브로 기능해 왔다. 이에 따라 SK에너지는 이번 공급 계약을 계기로 아태 지역 SAF 시장 공략에 한층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SK에너지가 대량 생산체계를 갖춘 것이 일단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K에너지는 지난해 9월 연산 10만톤 수준의



(왼쪽부터) SK에너지 이영철 마케팅본부장, 캐세이퍼시픽항공 알렉스 맥고완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최고 책임자가 지난 10일 홍콩 캐세이퍼시픽항공 본사에서 SAF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저탄소 제품 대량 생산체계를 갖추고 코프로세싱 방식으로 SAF 상업생산에 착수했다. 코프로세싱은 기존 석유제품 생산 공정 라인에 별도의 바이오 원료 공급 배관을 연결해 SAF와 바이오나프사 등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글로벌 SAF 수요는 지난 2021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오는 2050년까지 항공 업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까지 감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2%의 SAF 혼합 사용을 의무화했고 2030년에는 6%, 2050년에는 70%까지 의무화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은 2050년까지 항공유 사용 전량을 SAF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SAF 혼합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 조사기관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세계 SAF 시장은 2024년 약 17억달러(약 2조5000억원)에서 2034년 약 746억달러(약 108조 9600억원)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46.2%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SK에너지 이영철 마케팅본부장은 "국내외 SAF 정책 변화와 수요 변동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캐세이퍼시픽항공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적 파트너사들과 협력함으로써 안정적인 글로벌 SAF 공급망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BMW코리아, '뉴 iX2 eDrive20' 출시

'M 스포츠' 단일 트림... 6470만원

BMW 코리아가 BMW 최초의 순수 전기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SAC) '뉴 iX2 eDrive20'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BMW 뉴 iX2는 우아한 쿠페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 실루엣과 역동적인 외관이 돋보이는 독창적인 디자인에 친환경 순수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BMW의 최신 운영체제인 BMW 오퍼레이팅 시스템 9(이하 BMW OS 9)을 적용해 최상의 디지털 경험을 제공한다.

뉴 iX2의 전면부에는 날렵한 디자인의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와 고유의 무늬가 들어간 BMW 키드니 그릴이 어우러져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하단에 대형 공기흡입구를 장착해 더욱 과감한 인상을 연출한다.

후면부까지 유려하게 내리뻗은 지붕선은 리어 스포일러와 조화를 이뤄 BMW SAC 특유의 우아한 쿠페형 실루엣을 완성했으며, 19인치 더블 스포크 휠과 M 전용 사이드 스커트를 장착해 역동적인 감성을 더했다.

뉴 iX2의 실내에는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0.7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조합된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변속 레버와 컨트롤 패널이 통합된 플로팅 암레스트가 새롭게 적용되어 넓어진 공간 효율과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자

랑한다.

뉴 iX2 eDrive20에는 BMW의 최신 5세대 전동화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적용되어 강력한 주행 성능과 높은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전륜에 탑재된 싱글 전기 모터는 최고출력 204마력, 최대토크 25.5kg·m를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8.6초 만에 가속한다. 64.7kWh(Net)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350km이며, 전비는 4.8km/kWh이다. 완속 충전은 최대 11kW를 지원하고 최대 130kW까지 가능한 급속 충전으로 10~80% 충전에는 약 29분 정도 소요된다.

주차 보조 시스템은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도 장착됐다. 차량 스스로 주차 공간을 인식하고 주차를 수행하는 주차 보조 어시스턴트, 최대 50m까지 지나온 길을 기억하여 돌아가는 후진 어시스턴트, 차량 주변을 360도로 살펴볼 수 있는 서라운드 뷰, 3D 뷰 등이 포함된다.

BMW OS 9를 적용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기능 제어와 풍부한 디지털 경험을 모두 선사한다. T맵 기반의 한국형 BMW 내비게이션을 기본 탑재해 실시간 최신 지도 및 교통 정보는 물론 배터리 충전량까지 고려해 최적의 경로를 안내한다.

뉴 iX2 eDrive20는 M 스포츠 패키지를 단일 트림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647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이승용 기자